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7월 2일(화) 총 2매		세계 10대 도시 인천	
담당 부서	인구가족과	담당자	• 가족지원담당 • 주무관	권기영 ☎440-2871 김미경 ☎440-2874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위기 임산부·보호출산 지원 나선다
 - 인천자모원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지원 -
 - 7월 19일부터 긴급상담전화 '1308', 24시간 운영 -

인천시가 위기 임산부와 보호출산 지원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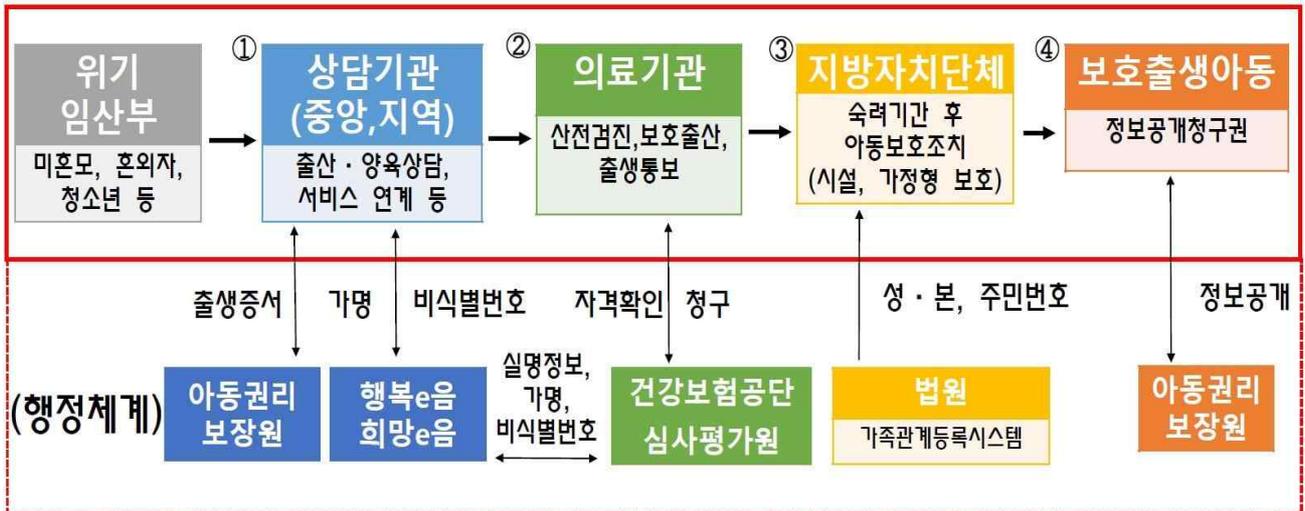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상담기관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로 즉시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위기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등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상담을 한 뒤 그럼에도 보호출산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하고 기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과 보호조치 연계, 숙려기간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담기관 운영 체계>

인천시는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해 모든 임신과 출산은 ‘위대한 탄생’ 이자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7월 19일부터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긴급전화 ‘1308’ 의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역상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고은화 시 인구가족과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